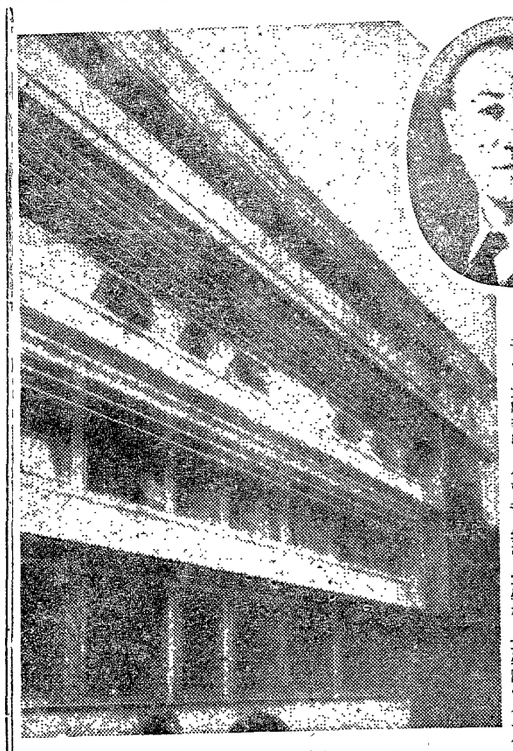
(號六十八第)　(可認物便郵第三種)　東大時報 The Dong Kook University Press　(4288.10.12)　(日曜水)日三月九年一九二四紀檀　(一)

東大時報
郵便 姓名 入行證
編輯兼印刷人 宇鳳崔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番地 東國大學內
社報時報大東
電話 ②{1685,1686,1687 8311,8612
(刊週)
圖畫 百貳 十五 錢 一部 定價 月 一 (每週發行)

新築 大學本部不遠竣工

매년 교사신축의 건설보(建設譜)가 우렁찬 본대학교에는 이번가을에도 백충장님(白總長任)의 교사신축 년차계획(年次計劃)이 예정대로 착착 완수되고있어 명신공이 최고 학부로서의 면모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백총장님의 신축계획은 이미 때학본부의 신축공사 준공을 오는 十월말로 보게 되며 대학원과 도서관의 건물신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三·四層은使用

十月末內로中講堂等完工

昨年度에 着工을 하고 있으며 이미 三層 (八個)女學生會館 交換臺·建築事務室等이 있게 될것이고 一層에는 講義室과 車庫 學生休憩室 및 購內食堂을 使用하게 되었으며 其他二層및 一層 中講堂等도 오는 十月末까지에는 『물탕크』와 溫室이 마련된다。

그런데 앞으로 完工될 二層에는 講義室六個와 學德圖書事務室 東大時報社 洋靴店 購內賣店等이 있게 될것이고 一層에는 講義時間表 賣店서 販賣

今年에들어 本格的인 工事가 進行되고있는 野球 大學本部의工事는 오는 十月末日을 期하여 完工할 豫定이라 한다。

農事院서職員 若干名을募集

『農事院』에서는 새로이 職員若干名을 募集하게 되어 이의 就職을 希望者추천을 各農科大學에 依賴하였는데 採用對象者는 (1)大學卒業生으로 軍에 入隊하여 兵役義務를 畢한後 一年을 經과하지 아니한者 (2)大學卒業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3)兵役義務務除者로써 大學을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한者로 年齡은 九月十五日 午前九時부터 午後 三時까지 農事院에 在學하고 있거나 學德圖書事務室이다。

除隊者復校

六個月內하도록

本校 在學生으로서 軍에入隊하여 學籍保有者로서 憲擧을 입어除隊한者는 除隊日부터 六個月內에 復校手續을完了하여 주기를 懇請하였다。

金奎榮教授渡白

베르기大學招請으로

本 大學校 佛敎大學 金奎榮敎授는『베르기大學』의 招請을받어 지난八月十九日 金浦空港에서 『베르기』로 向하였다。

그런데 同敎授는『베르기大學』에서앞으로 約一年間에 걸쳐 西洋哲學을 硏究하고 歸國할 豫定인데 往復旅費一切는 勿論 『베르기大學』에서 負擔하게된다。

除隊者復校

六個月內하도록

本校 在學生으로서軍에入隊하여 學籍保有者로서 憲擧을 입어除隊한者는 除隊日부터 六個月內에 復校手續을完了하여 주기를 懇請하였다。

學生課에서는 이러한 手續이 所定期日內에이루워 지지않을時에는軍에再召集된다는點을强調하면서 該當者는 銘心하여 遺憾됨이 없도록 하고있다。

講義時間表 賣店서 販賣

今年度 第二學期를맞이하여 敎務課에서는講義時間表를 作成 印刷完了하고 지난一日부터 購內賣店에서 販賣中에 있다。

「東國」誌續刊

今明間印刷完了

本大學校 學生委員會 學術部에서는 學生諸君中에 本校綜合誌인『東國』의 編輯을 끝내고 印刷에 着手했으며 不遠 이를 刊行할것이다。

水上競技實力誇示

大學部、二位를獲得

佛敎를 修行하는 行動의하나로安逸과 享樂을 貪하며 이와反對로 九十日을安全히 成就한이를 盛讚하여 世間에 稱讚하는 制度가있다함은 梵語의Varsa를譯한 말이다 또다른말로는 雨季、夏經、夏節、夏坐、白夏라고도 부른다。

安居의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起源

安居의 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種類

安居의 種類는 佛敎의 傳播와 함께 各地의 風土와 習慣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생겨진것이다 그리고 安居의 行事는 佛敎에서 처음한것이 아니고 佛敎以前부터 印度의 婆羅門이行하여오든法을 釋迦牟尼께서 成道하신 竹林精舍에서 처음으로 여러弟子들과 이法을結한後로 해를거듭하는 사이에 佛敎의 獨占行事처럼 된것이다。

安居의 起源

安居의 처음날을 結制또는 結夏라하고 끝마치는날을 解制라한다 由來에서 禁을 破하고 外出을하는것을 破夏者라 불러 僧團에서嚴禁을 當하며 이와反對로 九十日을安全히 成就한이를 盛讚하여 世間에 稱讚하는 制度가있다함은 梵語의 Varsa를譯한 말이다 또다른말로는 雨季、夏經、夏節、夏坐、白夏라고도 부른다。

安居의 起源

安居의 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種類

安居의 種類는 佛敎의 傳播와 함께 各地의 風土와 習慣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생겨진것이다 그리고 安居의 行事는 佛敎에서 처음한것이 아니고 佛敎以前부터 印度의 婆羅門이行하여오든法을 釋迦牟尼께서 成道하신 竹林精舍에서 처음으로 여러弟子들과 이法을結한後로 해를거듭하는 사이에 佛敎의 獨占行事처럼 된것이다。

普提樹

安居

……居

佛敎를 修行하는 行動의하나로安逸과 享樂을 貪하며 이와反對로 九十日을安全히 成就한이를 盛讚하여 世間에 稱讚하는 制度가있다함은 梵語의 Varsa를譯한 말이다 또다른말로는 雨季、夏經、夏節、夏坐、白夏라고도 부른다。

安居의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種類

安居의 種類는 佛敎의 傳播와 함께 各地의 風土와 習慣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생겨진것이다 그리고 安居의 行事는 佛敎에서 처음한것이 아니고 佛敎以前부터 印度의 婆羅門이行하여오든法을 釋迦牟尼께서 成道하신 竹林精舍에서 처음으로 여러弟子들과 이法을結한後로 해를거듭하는 사이에 佛敎의 獨占行事처럼 된것이다。

金奎榮教授渡白

베르기大學招請으로

本 大學校 佛敎大學 金奎榮敎授는『베르기大學』의 招請을받어 지난八月十九日 金浦空港에서 『베르기』로 向하였다。

그런데 同敎授는『베르기大學』에서앞으로 約一年間에 걸쳐 西洋哲學을 硏究하고 歸國할 豫定인데 往復旅費一切는 勿論 『베르기大學』에서 負擔하게된다。

講義時間表 賣店서 販賣

今年度 第二學期를맞이하여 敎務課에서는講義時間表를 作成 印刷完了하고 지난一日부터 購內賣店에서 販賣中에 있다。

「東國」誌續刊

今明間印刷完了

本大學校 學生委員會 學術部에서는 學生諸君中에 本校綜合誌인『東國』의 編輯을 끝내고 印刷에 着手했으며 不遠 이를 刊行할것이다。

水上競技實力誇示

大學部、二位를獲得

今年度 大學院 新入生中 學係長 該當者는 오는 二十日 以內로軍服務短縮願을 大學院 事務室에 提出하여야만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3)兵役義務務除者로써 大學을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4)大學院에 在學하고 있거나 學德圖書事務室이다。

軍服務 短縮願

20日限 要提出

學生課에서는 方今在學中 徵集該當者 全員의 軍服務年限 短縮에 關한 書類를 오는 二十日까지 學生課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對하여 全校生中에 該當하는者의 누락이 없도록 注意를 喚起하고있다。

防諜意識을 고취

15日부터 全國防諜週間實施

雪岳山登攀에 成功

施實서 班岳山中學放

反共精神 昂揚에 功獻

講演會連日盛況

劉西書主任 一日歸國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商大學	一般및外國人	合計
七月	22	17	367	1.358	33	67	1.874
月累計	115	188	3.15.	9.76.	221	423	13.910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大學林農	一般및外國人	合計
八月	13	8	64	304	16	41	451
月累計	128	196	3.215	1.0068	237	46+	14.361

圖書室整理

中央圖書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大學의 基準

新學期에 寄함

大學의 歷史는 長久한 것이며 大學이 지닌 本質도 時代的인 特性이나 社會的인 基礎에 따라 各樣의 歷史的 原因에 依하여 多樣性은 있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의 原因은 歪曲되고 墮落된 大學을 警戒하는 意味도 있다고 보여진다。

講習所的 大學

大學을 講習所的으로 誤解한다든지 或은 大學을 賭口之藥을 購하기 爲한 學位買賣場所로 여긴다든지 또는 大學의 敎職을 就職入收得의 捷徑으로 看做한다든지 하는것은 到底히 생각할수없는 厚俗敗된 頹廢思想에서 大學은 나날이 그數를 增加시켜 왔다。

이러한 腐敗가 現存大學全部에 適用되고 있는것은 勿論 아니지만 相當數의 似而非 大學이 있어야하겠다。

似而非 大學

似而非 大學이 存立되고있다는 事實은 否認못할것으로 안다。

京鄕各地의 數多한大學들이 所謂建物의 體裁으로 그 威容을 誇示하고 있지만 그 理念이나 人的構成에 있어서 果然 몇개의 大學이 學問의 殿堂으로서 自處할수 있단 말인가。

大學의 理念

大學의 理念은 大學存立의目的과 그實現을 위할 人的構成 施設의 充實하여지게 마련이며 施設이 充實하여진다고 하여 없는사람을 있게할수는 없는것이다 大學이大學다운 基準에 到達하려면 于先 敎授와 學生을 積極的으로 育成하여야 한다。

敎授와 學生

敎授와 學生은 研究만을 生活로 하는 敎授와 工夫만을 生活로 하는 學生이 그充實한 成果를 거둘수있도록 一切의 世俗的인 雜沓을 排除하고 研究室 講義室 圖書館 實驗室 運動場을 爲始한 諸施設이 完備되어있을것이다。

그렇다고 學園을 現實을 無視한 象牙塔的 存在로 放置하라는 말은 아니다。例年의 例로 보아 官廳이나 銀行 會社의公募試驗에 合格한 學生들이 臨時의 生活方便으로 敎職에 선다든지 爲等學校에서 落第候補生으로 간신이 卒業을 한人間을 大學生으로 入學을 시켜놓았댓자 그敎授 그學生으로 學園의 要圖案가 瓦解될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例가 相當히 많은것은 이나라의 大學을 위하여 또한 學生을 위하여 慨嘆할 일이다。

大學은 이러한 要請에 依하여 存在하는것이기 때문에 大學이 理想하는 敎授와 學生은 敎育의 基準을 充足시킬수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韓國의 現狀은 그 人員이나 施設의 內容으로 보아 이러한 基準에 過히 未達하다

大學의 基準

新學期에 寄함

大學의 歷史는 長久한 것이며 大學이 지닌 本質도 時代的인 特性이나 社會的인 基礎에 따라 各樣의 歷史的 原因에 依하여 多樣性은 있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의 原因은 歪曲되고 墮落된 大學을 警戒하는 意味도 있다고 보여진다。

講習所的 大學

大學을 講習所的으로 誤解한다든지 或은 大學을 賭口之藥을 購하기 爲한 學位買賣場所로 여긴다든지 또는 大學의 敎職을 就職入收得의 捷徑으로 看做한다든지 하는것은 到底히 생각할수없는 厚俗敗된 頹廢思想에서 大學은 나날이 그數를 增加시켜 왔다。

이러한 腐敗가 現存大學全部에 適用되고 있는것은 勿論 아니지만 相當數의 似而非 大學이 있어야하겠다。

似而非 大學

似而非 大學이 存立되고있다는 事實은 否認못할것으로 안다。

京鄕各地의 數多한大學들이 所謂建物의 體裁으로 그 威容을 誇示하고 있지만 그 理念이나 人的構成에 있어서 果然 몇개의 大學이 學問의 殿堂으로서 自處할수 있단 말인가。

大學의 理念

大學의 理念은 大學存立의目的과 그實現을 위할 人的構成 施設의 充實하여지게 마련이며 施設이 充實하여진다고 하여 없는사람을 있게할수는 없는것이다 大學이大學다운 基準에 到達하려면 于先 敎授와 學生을 積極的으로 育成하여야 한다。

敎授와 學生

敎授와 學生은 研究만을 生活로 하는 敎授와 工夫만을 生活로 하는 學生이 그充實한 成果를 거둘수있도록 一切의 世俗的인 雜沓을 排除하고 研究室 講義室 圖書館 實驗室 運動場을 爲始한 諸施設이 完備되어있을것이다。

그렇다고 學園을 現實을 無視한 象牙塔的 存在로 放置하라는 말은 아니다。例年의 例로 보아 官廳이나 銀行 會社의公募試驗에 合格한 學生들이 臨時의 生活方便으로 敎職에 선다든지 爲等學校에서 落第候補生으로 간신이 卒業을 한人間을 大學生으로 入學을 시켜놓았댓자 그敎授 그學生으로 學園의 要圖案가 瓦解될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例가 相當히 많은것은 이나라의 大學을 위하여 또한 學生을 위하여 慨嘆할 일이다。

大學은 이러한 要請에 依하여 存在하는것이기 때문에 大學이 理想하는 敎授와 學生은 敎育의 基準을 充足시킬수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韓國의 現狀은 그 人員이나 施設의 內容으로 보아 이러한 基準에 過히 未達하다

社說

大學의 基準

新學期에 寄함

大學의 歷史는 長久한 것이며 大學이 지닌 本質도 時代的인 特性이나 社會的인 基礎에 따라 各樣의 歷史的 原因에 依하여 多樣性은 있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의 原因은 歪曲되고 墮落된 大學을 警戒하는 意味도 있다고 보여진다。

講習所的 大學

大學을 講習所的으로 誤解한다든지 或은 大學을 賭口之藥을 購하기 爲한 學位買賣場所로 여긴다든지 또는 大學의 敎職을 就職入收得의 捷徑으로 看做한다든지 하는것은 到底히 생각할수없는 厚俗敗된 頹廢思想에서 大學은 나날이 그數를 增加시켜 왔다。

이러한 腐敗가 現存大學全部에 適用되고 있는것은 勿論 아니지만 相當數의 似而非 大學이 있어야하겠다。

似而非 大學

似而非 大學이 存立되고있다는 事實은 否認못할것으로 안다。

京鄕各地의 數多한大學들이 所謂建物의 體裁으로 그 威容을 誇示하고 있지만 그 理念이나 人的構成에 있어서 果然 몇개의 大學이 學問의 殿堂으로서 自處할수 있단 말인가。

大學의 理念

大學의 理念은 大學存立의目的과 그實現을 위할 人的構成 施設의 充實하여지게 마련이며 施設이 充實하여진다고 하여 없는사람을 있게할수는 없는것이다 大學이大學다운 基準에 到達하려면 于先 敎授와 學生을 積極的으로 育成하여야 한다。

敎授와 學生

敎授와 學生은 研究만을 生活로 하는 敎授와 工夫만을 生活로 하는 學生이 그充實한 成果를 거둘수있도록 一切의 世俗的인 雜沓을 排除하고 研究室 講義室 圖書館 實驗室 運動場을 爲始한 諸施設이 完備되어있을것이다。

그렇다고 學園을 現實을 無視한 象牙塔的 存在로 放置하라는 말은 아니다。例年의 例로 보아 官廳이나 銀行 會社의公募試驗에 合格한 學生들이 臨時의 生活方便으로 敎職에 선다든지 爲等學校에서 落第候補生으로 간신이 卒業을 한人間을 大學生으로 入學을 시켜놓았댓자 그敎授 그學生으로 學園의 要圖案가 瓦解될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例가 相當히 많은것은 이나라의 大學을 위하여 또한 學生을 위하여 慨嘆할 일이다。

大學은 이러한 要請에 依하여 存在하는것이기 때문에 大學이 理想하는 敎授와 學生은 敎育의 基準을 充足시킬수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韓國의 現狀은 그 人員이나 施設의 內容으로 보아 이러한 基準에 過히 未達하다

文教部에서 大學當局에 示達된『全國防諜週間』實施가 오는十五부터 二十一日까지에 걸쳐 實施된다

國際情勢가 미묘한들을 利用하여 各方面으로 침입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全國民에게 反共精神의昂揚과 防諜意識을 加一層 높이고 利用하려는 學園도 있고 學術報告 出刊하고 있는 學會도 있고 大學의 學生課에서는 防諜意識을 加一層 높이고 利用하려는 學園도 있고 學術報告 出刊하고 있는 學會도 있고 大學의 學生課에서는 防諜意識을 加一層 높이고 利用하려는 學園도 있고 學術報告 出刊하고 있는 學會도 있고 大學의 學生課에서는

就職등 各分野로 職場에 침투하여 활동하려는 五個년 不順分子를 索出하여 國家防衛의完全을 期하는데 趣旨를 두고있다 本大學에서는 이러한 行事로는 各級機關의 防諜團體 自衛團의 防諜作品展示會 또는 防諜作品募集및 防諜講演會등 各種行事를 擧行하여 防諜思想을 鼓吹하고 防諜精神을 涵養하는 한편 本大學 當局에서도 이러한 趣旨에 따라 各種行事를 積極的으로 協力하고 있다

劉西書主任 一日歸國

昨年九月二日 ICA 技術援助資金에 依하여 南美 콜롬비아大學으로 留學中이던 劉先生은 이번歸美中 二時間식을 行하고있다 講演對象者로는 全國男女 高等學校學生들로써 全國各 大中都市를 巡訪할 豫定이라한다 本校中央圖書館西書 主任 劉永奎先生은 向後 一個年間 所定의研究를마치고 지난一日歸國 現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反共精神 昂揚에 功獻

全國巡廻大學代表 講演會連日盛況

오는16日까지二十日間實況

中央學徒護國團에서는 지난 八月二十六日부터 全國重要都市를 巡廻하여 時局講演과 反共精神昂揚 學術講演會를 開催하고 있다 이번 講演班은 二時間씩을 行하고있다 講演對象者로는 全國男女 高等學校學生들로써 全國各 大中都市를 巡訪할 豫定이라한다 本校中央圖書館西書 主任 劉永奎先生은 向後 一個年間 所定의研究를마치고 지난一日歸國 現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劉西書主任 一日歸國

昨年九月二日 ICA 技術援助資金에 依하여 南美 콜롬비아大學으로 留學中이던 劉先生은 이번歸美中 二時間식을 行하고있다 講演對象者로는 全國男女 高等學校學生들로써 全國各 大中都市를 巡訪할 豫定이라한다 本校中央圖書館西書 主任 劉永奎先生은 向後 一個年間 所定의研究를마치고 지난一日歸國 現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反共精神 昂揚에 功獻

全國巡廻大學代表 講演會連日盛況

오는16日까지二十日間實況

中央學徒護國團에서는 지난 八月二十六日부터 全國重要都市를 巡廻하여 時局講演과 反共精神昂揚 學術講演會를 開催하고 있다 이번 講演班은 二時間씩을 行하고있다 講演對象者로는 全國男女 高等學校學生들로써 全國各 大中都市를 巡訪할 豫定이라한다 本校中央圖書館西書 主任 劉永奎先生은 向後 一個年間 所定의研究를마치고 지난一日歸國 現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功成 雪岳山登攀에

施實서 班岳山中學放

防諜意識을 고취

15日부터 全國防諜週間實施

軍服務 短縮願

20日限 要提出

學生課에서는 方今在學中 徵集該當者 全員의 軍服務年限 短縮에 關한 書類를 오는 二十日까지 學生課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對하여 全校生中에 該當하는者의 누락이 없도록 注意를 喚起하고있다。

水上競技實力誇示

大學部、二位를獲得

今年度 大學院 新入生中 學係長 該當者는 오는 二十日 以內로軍服務短縮願을 大學院 事務室에 提出하여야만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3)兵役義務務除者로써 大學을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4)大學院에 在學하고 있거나 學德圖書事務室이다。

講義時間表 賣店서 販賣

今年度 第二學期를맞이하여 敎務課에서는講義時間表를 作成 印刷完了하고 지난一日부터 購內賣店에서 販賣中에 있다。

「東國」誌續刊

今明間印刷完了

本大學校 學生委員會 學術部에서는 學生諸君中에 本校綜合誌인『東國』의 編輯을 끝내고 印刷에 着手했으며 不遠 이를 刊行할것이다。

金奎榮教授渡白

베르기大學招請으로

本 大學校 佛敎大學 金奎榮敎授는『베르기大學』의 招請을받어 지난八月十九日 金浦空港에서 『베르기』로 向하였다。

그런데 同敎授는『베르기大學』에서앞으로 約一年間에 걸쳐 西洋哲學을 硏究하고 歸國할 豫定인데 往復旅費一切는 勿論 『베르기大學』에서 負擔하게된다。

除隊者復校

六個月內하도록

本校 在學生으로서軍에入隊하여 學籍保有者로서 憲擧을 입어除隊한者는 除隊日부터 六個月內에 復校手續을完了하여 주기를 懇請하였다。

學生課에서는 이러한 手續이 所定期日內에이루워 지지않을時에는軍에再召集된다는點을强調하면서 該當者는 銘心하여 遺憾됨이 없도록 하고있다。

農事院서職員 若干名을募集

『農事院』에서는 새로이 職員若干名을 募集하게 되어 이의 就職을 希望者추천을 各農科大學에 依賴하였는데 採用對象者는 (1)大學卒業生으로 軍에 入隊하여 兵役義務를 畢한後 一年을 經과하지 아니한者 (2)大學卒業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3)兵役義務務除者로써 大學을 卒業한後 一年이 經과하지 아니한者 (4)大學院에 在學하고 있거나 學德圖書事務室이다。

普提樹

安居

……居

佛敎를 修行하는 行動의하나로安逸과 享樂을 貪하며 이와反對로 九十日을安全히 成就한이를 盛讚하여 世間에 稱讚하는 制度가있다함은 梵語의 Varsa를譯한 말이다 또다른말로는 雨季、夏經、夏節、夏坐、白夏라고도 부른다。

安居의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種類

安居의 種類는 佛敎의 傳播와 함께 各地의 風土와 習慣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생겨진것이다 그리고 安居의 行事는 佛敎에서 처음한것이 아니고 佛敎以前부터 印度의 婆羅門이行하여오든法을 釋迦牟尼께서 成道하신 竹林精舍에서 처음으로 여러弟子들과 이法을結한後로 해를거듭하는 사이에 佛敎의 獨占行事처럼 된것이다。

安居의 起源

安居의 처음날을 結制또는 結夏라하고 끝마치는날을 解制라한다 由來에서 禁을 破하고 外出을하는것을 破夏者라 불러 僧團에서嚴禁을 當하며 이와反對로 九十日을安全히 成就한이를 盛讚하여 世間에 稱讚하는 制度가있다함은 梵語의 Varsa를譯한 말이다 또다른말로는 雨季、夏經、夏節、夏坐、白夏라고도 부른다。

安居의起源은 印度의 氣候的인 運動에서 생겨진 하나의 制度이다即 印度에는 降雨期가 三個月間이나계속되며 期에當하여 一夏九旬이行하여 現在 陰曆으로四月十六日에서 七月十五日까지의九十日間에 限해서 佛敎僧團에서는 禁足을하고 一定한 場所에서專門으로 佛敎修行에만 沒頭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制度는 雨期에 當하여 不便한 點이 많은것이다。

安居의 種類

安居의 種類는 佛敎의 傳播와 함께 各地의 風土와 習慣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생겨진것이다 그리고 安居의 行事는 佛敎에서 처음한것이 아니고 佛敎以前부터 印度의 婆羅門이行하여오든法을 釋迦牟尼께서 成道하신 竹林精舍에서 처음으로 여러弟子들과 이法을結한後로 해를거듭하는 사이에 佛敎의 獨占行事처럼 된것이다。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大學林農	一般및外國人	合計
八月	13	8	64	304	16	41	451
月累計	128	196	3.215	1.0068	237	46+	14.361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商大學	一般및外國人	合計
七月	22	17	367	1.358	33	67	1.874
月累計	115	188	3.15.	9.76.	221	423	13.910

圖書室整理

中央圖書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大學林農	一般및外國人	合計
八月	13	8	64	304	16	41	451
月累計	128	196	3.215	1.0068	237	46+	14.361

表統計中月員人覽閱書圖

區別 月別	敎職員및學生	佛敎大學	文科大學	法政大學	大學林農	一般및外國人	合計
七月	22	17	367	1.358	33	67	1.874
月累計	115	188	3.15.	9.76.	221	423	13.910

圖書室整理

中央圖書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者覽閱閱月八·七

發表

本大學校中央圖書館에서 發表한 지난 七月과 八月의 圖書閱覽統計表에 依하면 統計表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本大學生들의 圖書閱覽에 加一層 努力하여 주도록 希望하고 있다。

文化의 精粹 드디어 天下에 公開되다

東國大學校影印

全二十六卷 四六倍版 特別洋裝 一、二五〇面平均

卷 第一、第二、第三、第四、第五既刊 第六(印刷中 近日配本)

配本節次(會員에限해서 實費의 半額(一萬圓整)으로配本함 會則및 內容見本은 請求者에게 無料進呈함)

서울特別市中區筆洞三街二六番地

振替口座 서울六一番 電②一六八五·一六八六·一六八七 八六一一·八六一二

東國大學校

高麗大藏經保存同志會

紛失廣告

本證 咸興咸興市新上里一六 住所 서울特別市鐘路區苑南洞二一九 四二七〇年六月十四日生 金光洙 印

右 學生證一切를 紛失하였기 本大學生들의 五個大學에서 한 歷史代表들이 한名 昨年九月二日 ICA 技術援助資金에 依하여 콜롬비아大學으로 留學中이던 劉先生은 이번歸美中 二時間식을 行하고있다 講演對象者로는 全國男女 高等學校學生들로써 全國各 大中都市를 巡訪할 豫定이라한다 本校中央圖書館西書 主任 劉永奎先生은 向後 一個年間 所定의研究를마치고 지난一日歸國 現在 本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第二學期秋季開講과 同時에 圖書館의 總藏書 一切를 整理하기 爲하여 圖書館의 正規 整理를 完了하고 本校圖書閱覽者의 萬全을 期하였다 이러한 圖書의 整理는 每年에 一回씩 實施되는 것으로 이번期間(二、三日間)에는 休館을 미리 公告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博文書館刊

著者 金容晋 서울高法部長判事 法典編纂委員 國民大·檀大講師

新民法解義 (總則) 菊版 332面 特價 1,300圓

新民法解義 (物權法) 菊判 332面 特價 1,300圓

新民法解義 (債權法)(總則) 菊判 366面 特價 1,400圓

新民法解義 (債權法)(各論) 菊版 376面 特價 1,500圓

募集 會員

今般 本大學校 學生委員會 禪武部에서는 左記와 如히第七期 部員을 募集함

記

一、資格=本大學校 在籍者 成績이 優秀하고 品行이 端正한者

一、期間=自=四二九一年九月 一日 至=四二九一年九月十五日 十五日間

一、場所=學生委員會 禪武部

部員募集

學生委員會 禪武部

會員 貴下

檀紀四二九一年 月 日

東國大學校內

高麗大藏經保存同志會

高麗大藏經 第五卷 出版案內

會員諸位께서 豫約하신 高麗大藏經 第五卷이 出版되었사오니 會員諸位는 保存價格 壹萬圓을 持參하시고 찾어가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檀紀四二九一年 月 日

東國大學校內

高麗大藏經保存同志會

博文書館刊

著者 金容晋 서울高法部長判事 法典編纂委員 國民大·檀大講師

新民法解義 (總則) 菊版 332面 特價 1,300圓

新民法解義 (物權法) 菊判 332面 特價 1,300圓

新民法解義 (債權法)(總則) 菊判 366面 特價 1,400圓

新民法解義 (債權法)(各論) 菊版 376面 特價 1,500圓

學界의 人物

一法律隨想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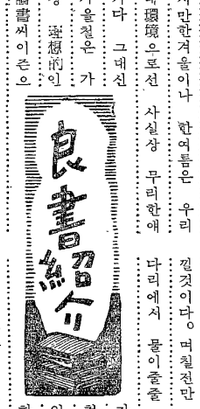
林 商 鎰

編輯者側에서 要請한 題目은 새로운 學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內容으로서는 法學界의 最新學說을 紹介하기를 要望한다고 附記하였다 筆者는 民法과 民事訴訟法 곧 民事法을 專攻하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民事法領域에 있어서의 새로운 學說같은 것을 紹介하여 보라는 뜻인것 같다 그것도 外國의 最新學說이든 國內學界의것이든 아무래도 총다는 뜻으로 理解해도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다니지 못한다는 點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學界의 人物이라는 것이 아니라 學問이 急激하게 發展하는 時勢에 發맞추어 나가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讀書의 季節과 數種의 書籍



李 昌 培

공부하는 사람이 철을 가려 보라 제법 선선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드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되는 서풍(西風)과 함께 서재(書齋)는 반드시 책(冊)과 책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름철 지난 한 더위를 이겨 지만한 것이나 ... 기다 그 대신 가을철은 가장 독서(讀書)의 계절(季節)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을을 책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는 먼저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좋을지 나쁜 것이 좋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학생(學生)들로서는 가장 큰 고통(苦痛)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 몇가지 독서(讀書)에 관(關)한 것을 여기에 소개(紹介)하여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問題)에 들어가기 전(前)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 독서(讀書)의 필요(必要)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새 아이들은 책(冊)을 보지 않는다고 걱정(걱정)하는 소리를 흔히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이들만의 탓이 아니다. 그 원인(原因)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中)에서 가장 큰 것은 아이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주지 않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간단(簡單)한 문제(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학생(學生)은 학생다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학생다운 책이란 학생의 지식(知識)을 넓히고 깊게 하는 책이다. 그러면 학생의 지식을 넓히고 깊게 하는 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학생의 전공(專攻)하는 학과(學科)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학생은 자기(自己)의 전공(專攻)하는 학과(學科)에 관(關)한 책(冊)을 읽어야 할 것은 물론(勿論)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不足)하다. 학생은 자기(自己)의 전공(專攻)하는 학과(學科)에 관(關)한 책(冊)을 읽는 것과 동시(同時)에 교양(敎養)을 넓히기 위(爲)하여 여러 가지 방면(方面)의 책(冊)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양(敎養)을 넓히기 위(爲)하여 읽어야 할 책(冊)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학생(學生)의 취미(趣味)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학생(學生)은 자기(自己)의 전공(專攻)하는 학과(學科)에 관(關)한 책(冊)을 읽는 것과 동시(同時)에 문학(文學)이나 역사(歷史)에 관(關)한 책(冊)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문학(文學)이나 역사(歷史)에 관(關)한 책(冊)은 어떠한 것을 읽어야 할

愚夫雜想

남기진

(1)

新聞이 우리의 生活과 重要한 交涉을 하고 있다고는 누구나 생각하는 바다 그만큼 新聞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크다는 말이다 그런나 昨日같이 새로운 「뉴-스」를 싣고 나오는 新聞의 紙面構成이우리같이變化없는나라도 있을까 疑問이다 于先 흥眞하나를 取扱하는데도 이처리가 니면 저처리 거의週期的으로 一定한 位置를 轉轉한다 그리고 無數히 쏟아지나오는 「뉴-스」들은 同一한 編輯者의 意圖에 依해서 處理되고 만다

그러나 이處理된 紙面의 記事가 다르고 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記事의 取扱方法도 비슷하기에 이다

그러나 이런類의 不滿이 獨自獨自를 빌려서 充實된다는 事實은 아니다 그하나가 「個性의 融如」라고 한다면 深刻한 疾病을 살사람이 있을까 人間의 容貌가 各樣各色이듯이 그個性도 多樣하다 新聞도 이에서例外일수 없다는것은 自明하다 獨特한 個性의 含一點가 健全한 社會를 이루듯이 新聞社會가 (?)라고 그렇지 말단 個性은 없다 個性의 明白如否에 달렸을것이다 個性은 經驗의 反省과 새로운 思想의 壓力에 依해서 多少의 移動을 가져옴으로서 發展하는 것이다 그하나가 「個性의 融如」라고 한다면 深刻한 疾病이 아니다 그만큼 新聞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크다는 말이다

그런나 昨日같이 새로운 「뉴-스」를 싣고 나오는 新聞의 紙面構成이우리같이變化없는나라도 있을까 疑問이다 于先 흥眞하나를 取扱하는데도 이처리가 니면 저처리 거의週期的으로 一定한 位置를 轉轉한다 그리고 無數히 쏟아지나오는 「뉴-스」들은 同一한 編輯者의 意圖에 依해서 處理되고 만다

그러나 이處理된 紙面의 記事가 다르고 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 그記事의 取扱方法도 비슷하기에 이다

그러나 이런類의 不滿이 獨自獨自를 빌려서 充實된다는 事實은 아니